

# 언제나 마음 편히 외식 한번 해 볼까

### 6월 외식물가 상승률 3.0%...37개월째 소비자물가 웃돌아 원재료값 상승에 고공행진...정부 "업계 물가안정 동참" 호소만 광주 생선회 4.3%, 전남 떡볶이 14.8%·김치찌개 10.0% 급등

가족·직장 동료와 외식·회식 하기가 부담될 정도로 외식 물가가 오르고 있다. 지난달 역시 외식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넘어섰다. 급기야 정부는 음식점주들에게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정작 외식 원재료가 워낙 가파르게 오른 상태라는 점에서 물가 대책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물가 상승률은 3.0%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2.4%)에 견줘 0.6%p 높았다.

고물가 장기화로 인해 원자재값이 치솟으면서 외식물가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무려 37개월째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상황으로, '런치플레이션', '스티커쇼크' 등의 말이 나올 정도다.

스티커쇼크는 소비자가 비싼 가격표(sticker)를

보고 받는 충격(shock)을 뜻한다.

한국소비자원이 매일 공개하는 계란과 식용유·화장지·라면·우유·밀가루·설탕 등 7대 생필품 가격의 경우 지난 3월에 비해 우유(10.7%), 계란(5.7%), 밀가루(4.0%), 식용유(3.0%), 화장지(2.9%), 설탕(1.3%) 등 6개 품목이 올랐다.

농산물 재료도 비슷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달 배추(10kg) 도매가격(9000원)이 1년 전 대비 11.1% 오를 것으로 전망했고 무(20kg) 도매가(1만 5000원)도 1년 전보다 21.8%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당근(20kg) 도매가(kg당 7만 5000원)도 1년 전에 비해 무려 130.3% 높은 것으로 예상했다. 오이 맛 고추(10kg) 도매가(3만 7000원)도 14.1%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온 상태다.

치솟은 원자재값은 음식값 인상에 반영된다. 호남지방통계청의 올 '6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동

향' 자료를 보면 광주지역 떡볶이 가격은 전년보다 8.8% 뛰었다. 생선회(4.3% ↑), 치킨(4.0% ↑) 등도 1년 전보다 가파르게 올랐고 전에서도 1년 전에 비해 떡볶이(14.8% ↑), 된장찌개백반(10.1% ↑), 김치찌개백반(10.0% ↑), 치킨(6.7% ↑) 가격이 상승했다.

재료값, 인건비 등 생산비가 상승한 탓에 음식점 등 지역 자영업자들도 손님 감소로 이어질 우려에도, 판매가를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채소 등을 확보해 비축해놓는 한편, 업계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동참을 호소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모양새다.

한훈 농림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식품 수급·생육 상황 점검회의'에서 "식품·외식 업계는 국민 물가 부담 완화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또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 2만 3000 t, 무 5000 t 을 확보하고 배추 예비보 200만 주도 준비하는 한편, 외식물가와 밀접한 양파, 마늘, 견고추 등 양념채소류는 1만4000 t 을 비축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외식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외식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은 여전할 전망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외식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등 외식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 명동거리에서 놓인 음식점 메뉴 홍보물 사진. /연합뉴스

## 광주신세계 5일~17일 유명 브랜드 빈티지 제품 '비바무역' 팝업 스토어

버버리, 막스마라, 폴로 랄프로렌, 타미힐피거, 리바이스 등 유명 브랜드의 빈티지 제품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매장이 생긴다.

광주신세계는 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본관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참고형 빈티지숍인 비바무역 팝업 스토어를 진행한다. <사진>

비바무역 팝업 스토어에서는 버버리, 막스마라, 폴로 랄프로렌, 타미힐피거, 리바이스 등 유명 브랜드의 빈티지 제품들을 갖춘다. 팝업 스토어 오픈에 맞춰 '3+1 이벤트'를 통해 4개 이상 제품 구매 시 가장 낮은 금액의 제품 1개를 무료로 준다.

또 10·15·30·50만원 이상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구매 금액에 따라 빈티지 스카프, 비바무역 키링, 핸드메이드 식탁보, 비바무역 스토우 텀블러



를 각각 증정한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중고를 낚는 것이 아닌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로 인해 행사 수요도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주식 1조 클럽' 16명...정의선 '톱 3' 진입

### 이재용 15조 7541억원 1위 김범수 1조 8000억원 감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주식 재산은 15조 754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월 사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주식재산은 9000억원 이상 증가한 반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주식재산은 1조 8000억원 남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88개 대기집단 중 6월 말 기준 주식평가액이 1000억원이 넘는 그룹 총수 46명의 주식재산을 분석한 결과, 주식재산 1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10조 837억원), 정의

선 현대차그룹 회장(4조 6618억원), 김범수 카카오 의장(4조 2973억원), 방시혁 하이브 의장(2조 6631억원) 순이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주식재산은 올해 1월 초 기준 3조 7377억원에서 9241억원 늘었다. 당초 6조 1186억원에서 1조 8213억원 줄어든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한 계단 내려간 4위에 랭크됐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대기집단에 추가된 5월 기준 주식재산 6위에서 한 달 만에 5위로 상승했다.

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2조 4727억원), 이동재 에코프로 전 회장(2조 2592억원), 장병구 크래프톤 의장(2조 2162억원), 최태원 SK그룹 회장(2조 579억원), 구광모 LG그룹 회장(2조 227억원)이 주식재산 '톱10'에 들었다. /연합뉴스

## 반도체 채용시장 열렸다...SK하이닉스 신입·경력 대규모 채용

### 삼성전자도 경력직 채용 공고

SK하이닉스가 이례적으로 7월에 신입·경력 사원을 동시에 대규모로 채용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이날 신입과 경력 채용을 동시에 진행하는 대규모 채용 공고를 냈다. 전체 채용 규모는 세자릿수다.

통상 상반기 공채가 4월, 하반기 공채가 9월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7월에 신입과 경력을 동시에 채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SK하이닉스는 그동안 상·하반기에 신입 공채를 진행했으나 2021년부터 상시 채용으로 바꿨다.

이처럼 대규모 채용에 나선 것은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해 HBM 선도 기업 지위를 굳히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는 HBM 설계와 어드밴스드 패키징 등 AI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포함해 최근 신규 투자를 발표한 정주 M15X, 미국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준비를 위한 엔지니어 인력 등 미래 성장을 위한 모든 영역에서 대거 채용한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기술에서 점차 중요성이 커지는 로직 요소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핀벵(FinFET) 분야 경력사원 채용도 함께 진행한다.

신입 사원의 경우 서류 전형 후 통과하면 필기전형인 SKCT(SK Competency Test)과 면접을 거쳐 9월 말에, 경력 사원은 11월 중에 각각 입사해 근무를 시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채용에 이어 오는 9월에는 경력 2~4년차를 대상으로 '주니어맨탈트' 전형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2월 졸업 예정자와 기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입 사원 채용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도 오는 9월까지 경력 사원을 채용한다고 공고했다. /연합뉴스

## 전력거래소 '분산에너지진흥센터' 지정

###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등 업무

전력거래소가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산에너지진흥센터'로 지정됐다.

4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력거래소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달 14일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분산에너지진흥센터로 지정됐다. 양 기관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전담기관으로서 향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기반조성, 시장제도개선 및 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전력거래소는 분산에너지 특구 내 전력 직접거래 등 산업 활성화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시범사업과 시장제도 개발·운영에 집중할 방침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국내에서 유일한 기관으로, 향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진흥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수강생 10명중 9명 단기합격" 공정위, 에듀윌 과태료 부과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강생 대부분이 단기 합격할 수 있다고 허위 광고한 에듀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듀윌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 합격'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수강생 중 10명만이 응답한 자체 합격률 설문 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이었다. 설문 조사의 내용도 '에듀윌 취업 강의 학습 이후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을 묻는 것으로 취업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전체 시간을 고려한 것은 아니었다.

에듀윌은 또한 2022년 2월부터 3월까지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원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행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기본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 삼성전자 '갤럭시 익스피리언스 스페이스' 7개국서 운영



삼성전자는 오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갤럭시 연례' 직후, 갤럭시 S24를 체험할 수 있는 '갤럭시 익스피리언스 스페이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과 파리, 미국 뉴욕, 독일 베를린, 일본 도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전세계 7개 도시에서 운영되는 갤럭시 익스피리언스 스페이스는 신제품과 갤럭시S24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다. 올해 초 S24 시리즈 공개 이후 스페인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광장에서 운영한 '갤럭시 익스피리언스 스페이스'. <삼성전자 제공>

## 부가가치세 25일까지 신고·납부...671만명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671만명으로 지난해 1기 대상자보다 26만명 많다. 개인 일반 과세자는 543만명, 법인사업자는 128만개다.

간이과세자라도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 5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내면 된다.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 해 납부세액의 절반 수준이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PC)에서 미

리채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실적이 없으면 모바일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종전까지 납세자 본인에게만 제공했던 예정신고 미환급·예정고지 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는 세무대리인에게도 확대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다음 달 14일까지 지급된다. 수출·중소기업 등이 오는 25일까지 환급을 신청하면 다음 달 2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늦출 수 있다. /연합뉴스

## 주택화재보험 규모

### 5년간 70% 이상 증가

화재뿐만 아니라 풍수해, 지진, 배상책임 등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주택화재보험 보험료 규모가 최근 5년간 7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주택화재보험 계약통계를 분석한 결과 작년 기준 수입보험료가 1532억원으로 5년 전인 2019년(925억원) 대비 70%가량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화재보험료는 같은 기간 608억원

에서 787억원으로 30% 증가했지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은 317억원에서 745억원으로 140% 증가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824.94 (+30.93)
↑ 코스닥	840.81 (+4.71)
↓ 금리(국고채 3년)	3.128 (-0.032)
↓ 환율(USD)	1380.40 (-10.20)